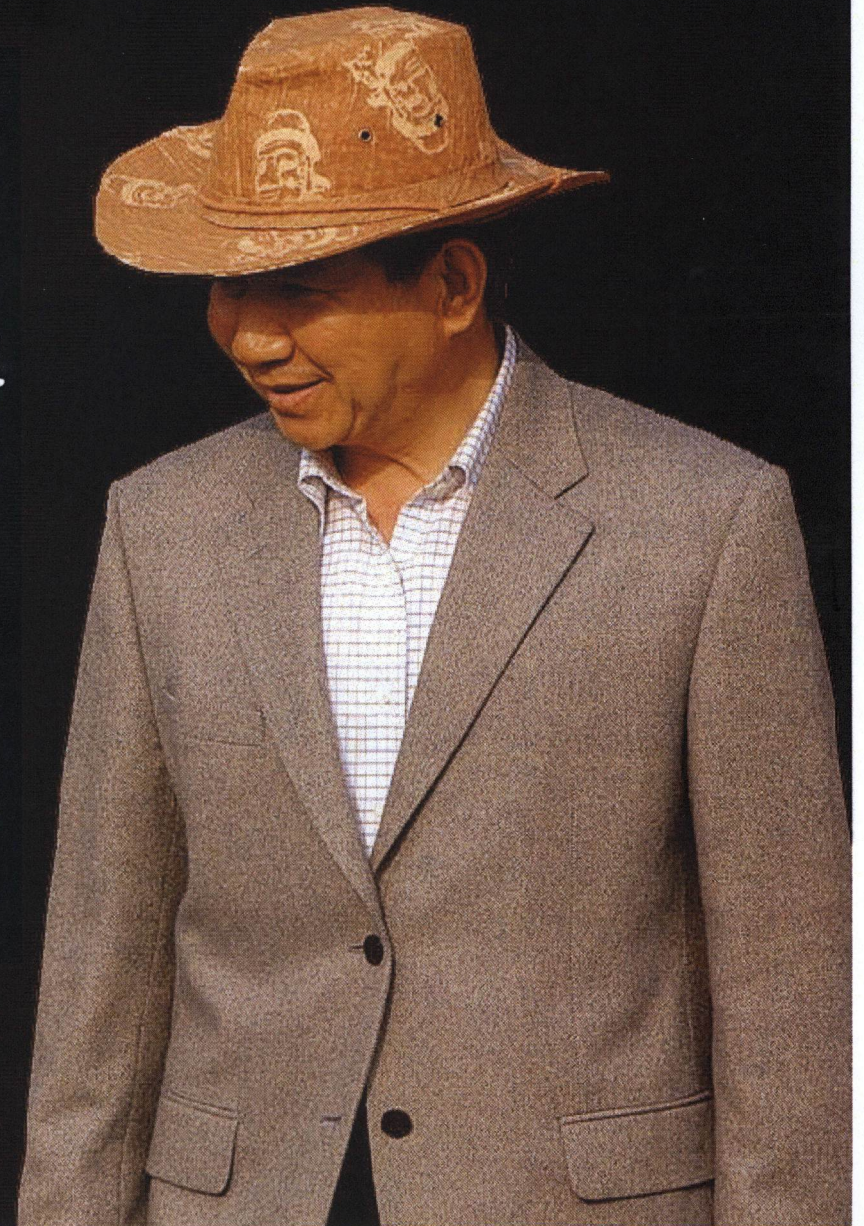


평화를 다지는 길
번영으로 가는 길

2007. 10. 2.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주)해강은 국회의 해태상을 비롯하여 청와대 및 산하기구의 휘호석을 제작 공급하며, 가치추구와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러기에 해강은 힘이 있으며 견고합니다. 단순 제작에만 집중되어 있는 동종업계와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 업계의 선두주자역할을 함과 동시에 전문가 집단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화를 다지는 길, 번영으로 가는 길"제안은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2주년을 앞두고 고인의 숭고한 민주화 정신과 현재 경직된 남북관계에 있어서 고인이 생전에 펼치셨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자, 2007년 세계인의 시선이 한반도에 집중되었던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님의 친필 휘호석을 축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촛불이 모이고 모여 국민 가슴속 한켠의 어두운 부분에 밝은 빛을 비춘 것처럼, 故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리워하며 추억하는 수많은 국민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는 고인의 환한 웃음과 재치있는 입담 그리고 열정적인 모습이 돌에 글씨를 새기듯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추억이 있기에 소중하며 간직하고 싶은 국민이 있기에 대통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사람은 소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배하는 사람도 있고 지배받는 사람도 있는데, 내 희망은 이 차이가 작아지기 바라는 것 입니다.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 사이에 가장 큰 단절은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와 국민이 소통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2006.08.28. 경복궁 신무문 개방행사)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과 시대의 물결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것은 권력을 누리고 위세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2003.10.13. 제234회 정기국회 국정연설)

어떠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고인의 뜻이 계승되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7년 그날의 두근거림을 기억하십니까?

금단의 선을 넘을때의 두근거림과 환희
그리고 감동은 지금도 어제의 일처럼 생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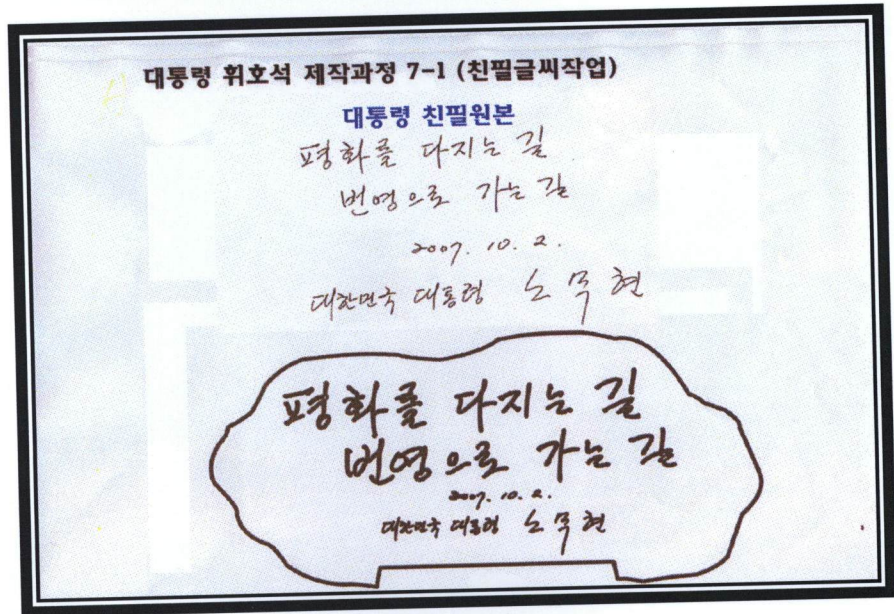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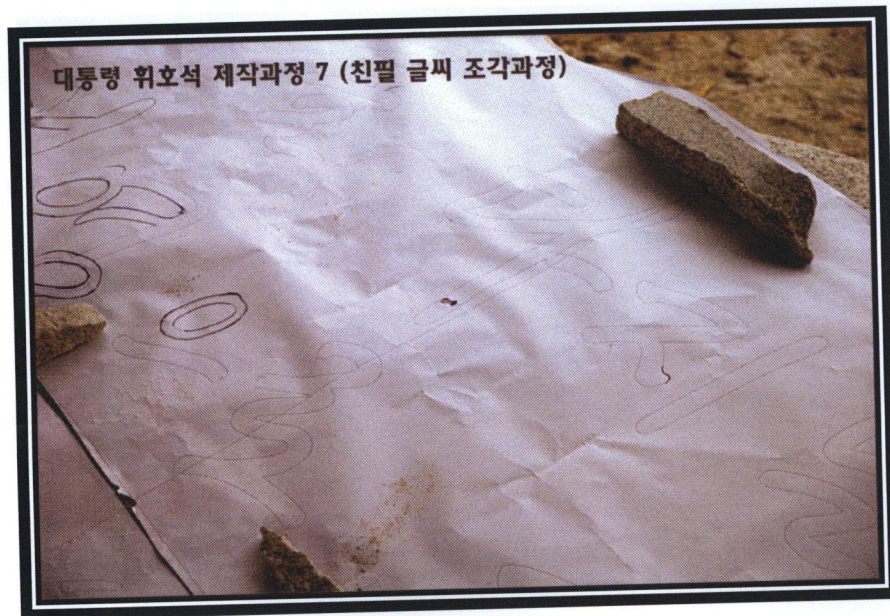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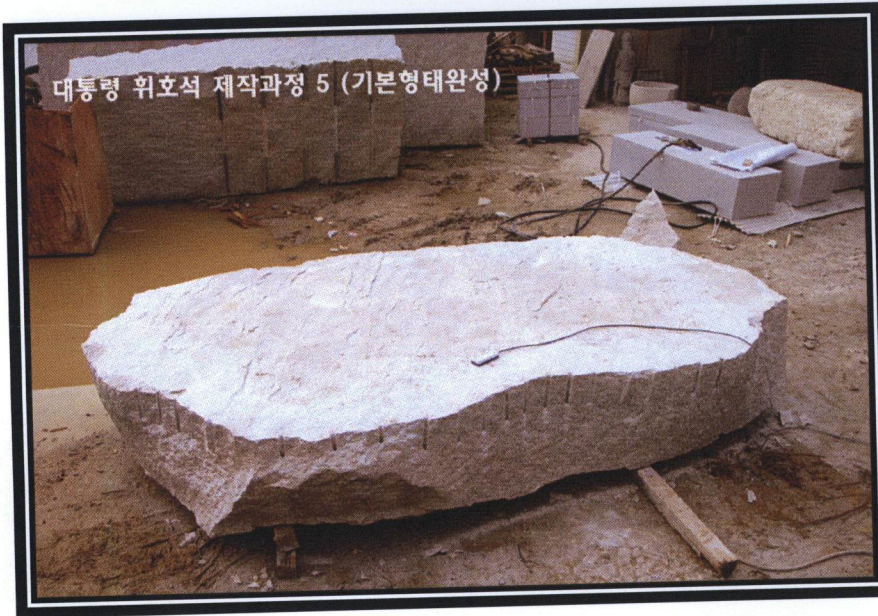
또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그날을 기억하
며 故 노무현 대통령님을 추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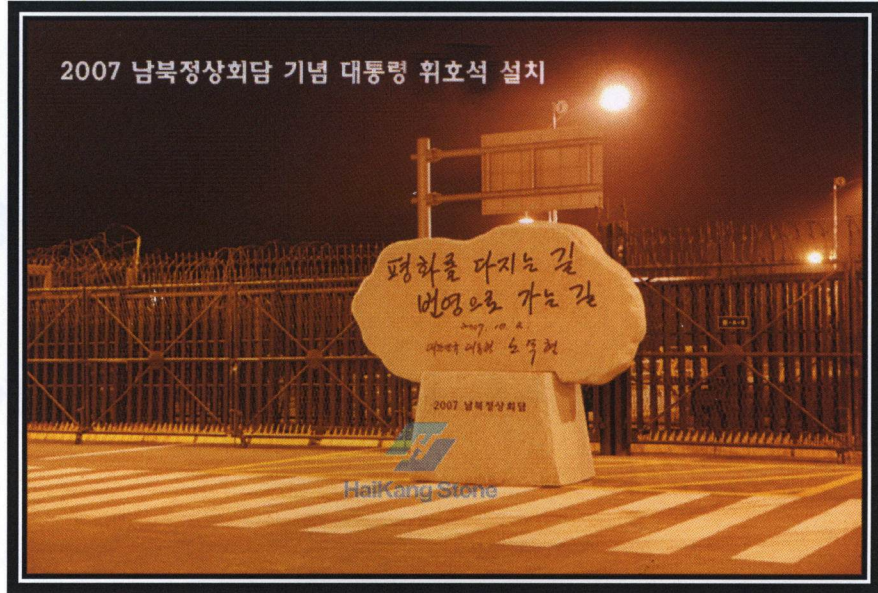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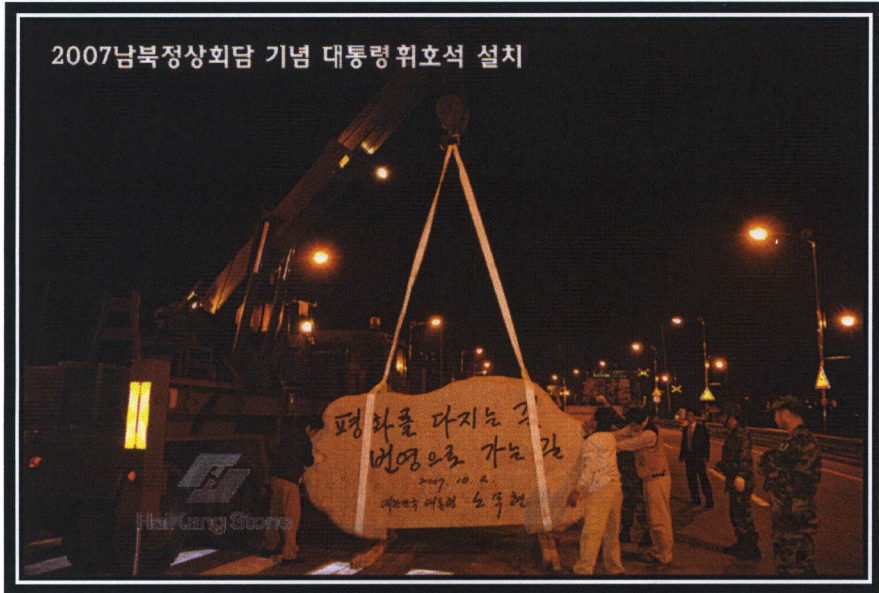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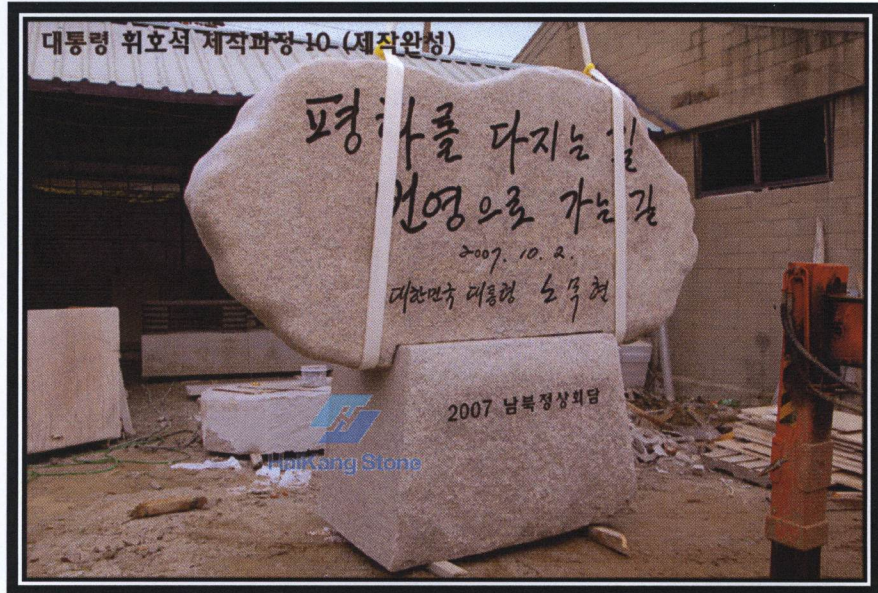
현재 소통의 부재와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수위를 넘어서고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민주세력의
재결집이 절실한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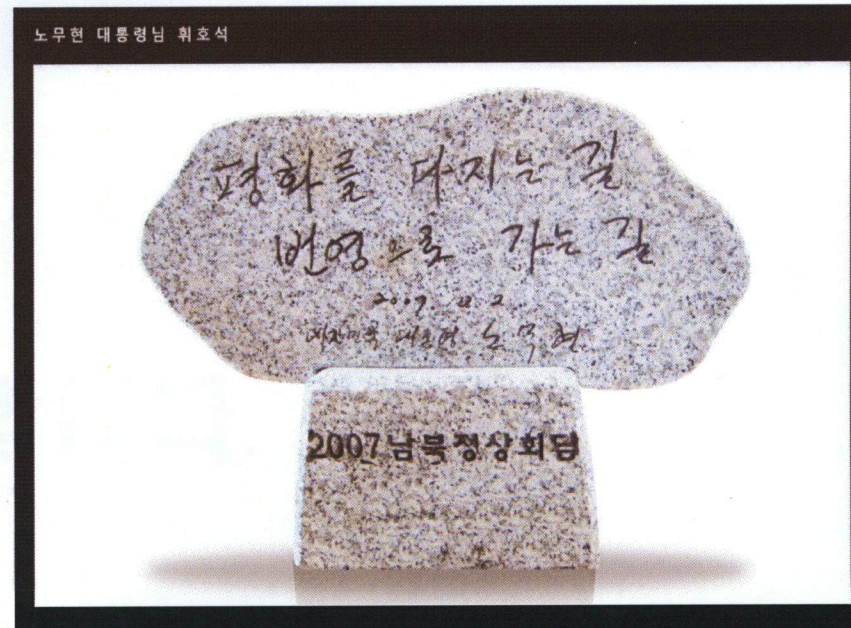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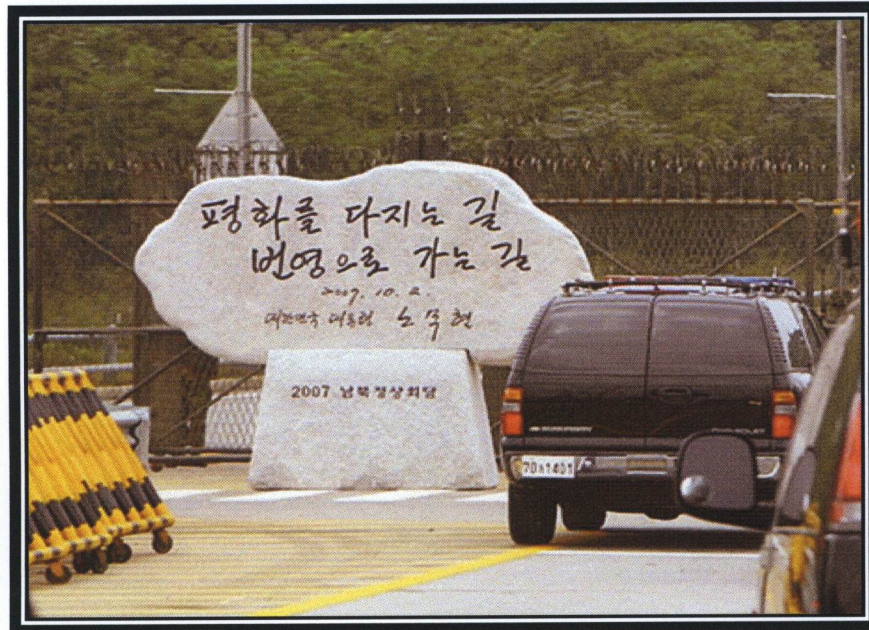
이에 해강은 국민 모두의 마음속 작은 불씨
를 모아 밝은 빛을 발하려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휘호석 제작과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기념 대통령 휘호석 미니어쳐>

대형 휘호석(왼쪽)을 축소하여 미니어쳐 형식으로 제작하여 마음속에 고인의 뜻을 체증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또한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민주세력의 재결집을 위한 초석을 마련함입니다.

감사합니다.



HaiKang Stone Co., Ltd.

www.haikangstone.com



본사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598-32
Tel : 031)9447-114 Fax : 031)9449-112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인증